전남도, 국비 확보 정부 공모사업 잇단 포기

수소시범도시·장애아동 공공재활병원 등 원하는 시·군 없어
두차례 유치 실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삼수 도전

전남도가 정부 공모사업 준비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게는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정부 공모에 뛰어들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수소시범도시 조성 포기,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차질=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국토부의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할 자치단체를 모집한 결과,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전무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까지 예정된 국토부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애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계기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포함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특히 전국 2위에 이르는 여수산단 내 13개사의 부생수소 생산량과 LNG 공급망을 갖춰 수소의 저장·활용이 용이한 점, 광양만권의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소재 기업들 집적화가 이뤄진 여건을 활용, 동부권에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소 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수소산업 육성 비전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여수시가 수소 시범도시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는데 난색을 표시하며 참여 불가 방침을 밝힌데다, 나머지 시·군도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전남도의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는 아예 지난 4일 진행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도 기존에 검토했던 수소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제외키로 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병원도 포기=전남도는 한때 '상생 정신 실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던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도 참여를 포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전남권, 경남권 등 권역별로 1곳씩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공모를 진행중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적자 보전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유치를 추진할 자치단체를 찾지 못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정부는 국비 78억원과 지방비 78억원 등 156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건립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수요를 구체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메꾸기도 버겁다는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전남지역 내 어린이 의료시설 현황, 근접거리에서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들의 여건을 감안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병원 유치가 절실하지만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엔 반드시=전남도는 국비만 2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유치에 실패했지만 전남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총력을 쏟고 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모 마감에 맞춰 관련 서류와 발표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첫 공모 때 신안을 후보지로 내세워 유치에 나섰다가 부산에 밀렸고 2차 공모에서는 경남 고성에 뒤져 탈락했다. 1차 공모 때부터 도전장을 냈던 부산·경남 고성·신안 중 신안만 유치에 실패했던 만큼 '전국 대표 수산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신안군도 2차례 유치에 실패하면서 제기된 해양수산부 지적사항인 ▲신안 지도읍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해지나 대체부지 마련 ▲어업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확대 ▲인력양성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폭설대응 교통소통 합동훈련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열린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합동훈련'에서 구조대원들이 사고차량의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기습폭설로 발생한 사고와 교통체증 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진행됐다. /최현배 기자choi@

김영록 지사 "농어민 공익수당 첫 단추 잘꿰어 성공모델 만들자" 해상풍력단지 국비 반영 노력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전남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시책을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챙김으로써 첫 단추를 잘 꿰어 성공모델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해 e-모빌리티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전남형 일자리사업인 서남해안해상풍력단지 등 시책이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도 전남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2020년 4월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초자료 조사부터 대상자 접수,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추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e-모빌리티와 에너지신산업 분야, 2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다"며 "특구 지정이 목표 도달이 아닌 출발 상태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서남해안해상풍력단지는 전남의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포함된데다 대통령도 공약한 관심사항이자, 전남형 일자리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라며 "직접, 간접적인 일자리 12만 개가 창출돼 대형 산단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계획에 포함돼 국비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 융자

연리 1%…내달 19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2020년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을 연리 1% 저리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와 지원 사업비는 2020년 1월께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농업인·법인 2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억원 이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대상자부터 시설자금 융자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5년 상환에서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1년 연장하는 등 융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확대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 904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52농가에 838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 해룡산단에 뿌리기술지원센터 개소
전남 뿌리산업 육성 원스톱 지원체계 확보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가 19일 개소했다.

순천 해룡산단에 자리한 뿌리기술지원센터는 국비 99억7000여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연구동과 공장동을 갖추게 된다.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을 위한 28종의 장비를 구축, 전남지역 뿌리산업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에 필수적인 6개 분야로 이뤄졌다. 이는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육성의 기반 기술이다.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직접 운영한다. 전남지역 기업이 더욱 알찬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은 1989년 10월 설립한 정부 출연 전문 연구기관이다. 생산기술개발, 실용화 지원, 기술·인력·인프라 활용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으로 전후방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활성화는 물론 2020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광양 익신산단의 열처리센터, 2022년까지 30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율촌산단의 기계부품가공센터와 함께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융합하는 첨단 뿌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결빙 비상대응

전남도는 오는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도로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시 교통 두절 예상 구간 및 상습 결빙 지역의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도로 제설 구간은 26개 노선이다. 상습정체 구간 37개소를 포함해 총 79km다. 덤프트럭·살포기·제설기를 포함한 장비 18대를 비롯해 제설자재 2800t을 갖췄다.

새벽 강설 예상 시 전날 제설제를 살포하고, 예기치 못한 돌발 강설에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시군과 비상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 액상제설제'와 '천일염'을 제설작업에 활용해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예방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제설자재)을 구입해 전통소금 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권수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제설계획은 그동안 중국산 공업용 제설제를 사용하던 것을 전남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설제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인허가 및 시공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중흥동 665-29)